

서울지부

황일규 : 남양주군 화도면 금남리 447-1 TEL. 마석 502

이삼식 : 남양주군 진접면 오남리 720-4 우성농장

이천지부

박태수 : 이천군 설성면 신필리 2리 산84-1 설성농원

춘천지부

박행덕 : 강원도 춘성군 신북면 용산 3리

대한 양돈협회 임직원 일동

양돈동향 지도부제공

《축산물유통예고》

자돈 생산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번식돈의 보유두수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생산되는 자돈은 85년 비수요기인 여름철에 출하된 돼지이므로 자돈 생산두수를 줄이고 번식돈을 늘리지 맙시다.

I. 돼지사육동향

1. 협회회원농가 사육동향 (50두 이상 5,000두미만 438호)

○요점

1. 총 사육두수는 6월대비 6%가 증가하였음.
2. 그중 육성비육돈은 7.8%가 증가하는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내었으며 번식활동돈중 중빈돈은 1%가 증가하였으나 중모돈(-15.9

가. 용도별 돼지 사육동향

구분	월별	84. 6	84. 8	증감수(두)	증감율(%)
호 수		438호	438호		
총 사육두수		114,321두	121,139두	+ 6,818	+ 6.0
번식활동두수(♀)		13,477	13,615	+ 138	+ 1.0
후 보 돈 수(♀)		1,785	1,460	- 326	-18.3
육성 비육돈		96,774	104,335	+ 7,561	+ 7.8

- (주) 1. 양돈협회 회원농가 조사자료
 2. 총 응신농가수는 6월에 508호, 8월에 512호가 응신하였으나 2회계속 응신한농가는 438호로 총응신농가의 85%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조사표응신농가의 계속적인 응신이 요구되고 있음.

%)과 후보중모돈(-49.6%) 및 후보중빈돈(-18.3%) 모두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나. 규모별 돼지 사육동향 (438 농가)

구분	규모별	총 계	1~49두	50~99두	100~499두	500~999두	1,000~4,999
사육호수	84. 6	438	3939	77	273	35	14
	8	438	26	82	269	49	12
	증감율(%)	0	감33.3	증 6.5	감 1.5	증40	감14.3
사육두수	84. 6	114,321	1,318	5,557	54,629	23,787	19,930
	8	121,139	835	6,026	61,224	34,222	18,832
	증감율(%)	증 6.0	감36.6	증 8.4	감 5.3	증43.9	감 1.0

○요점

1. 50두미만 영세 부업농가에서 호수및 두수 모두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내었으며 100~499두 규모와 1,000두이상 규모의 농가에서도 각각 감소추세를 나타내었다.
2. 500~999두 규모의 전업농가의 호수 및 두수 모두 큰 증가폭을 나타내었으며 50~99두 규모의 농장에서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다. 월령별 돼지 사육동향

구분\월령별	계	1월령	2월령	3월령	4월령	5월령	6월령
84. 6	96,774	19,856	16,493	17,116	21,772	14,222	7,315
8	104,335	21,406	21,467	19,292	19,860	16,789	5,521
증감율(%)	증 7.8	증 7.8	증30.2	증12.7	감 8.8	증18.0	감24.5

○요점

6개월령의 비육후기돈이 24.5%, 4개월령의 비육 전기돈이 8.8% 감소한 반면 자돈이 17.9%, 5개월령의 비육후기돈이 18%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3개월령의 육성돈도 12.7%가 증가하였음.

2. 대규모 양돈장 사육현황

구 분	84. 5월	6월 (A)	7월 (B)	8월 (C)	증 감 율	
					C/B	C/A
총 사육두수	186,658	187,640	189,547	192,384	증 2.0	증 3.1
자 돈	53,149	49,840	49,942	52,489	증 5.1	증 5.3
육 성 돈	109,897	115,085	116,935	117,635	증 0.6	증 2.2
번식활용돈(♀)	18,293	19,188	18,781	19,257	증 2.5	증 0.4
후보돈(♀)	2,139	1,944	2,211	2,291	증 3.6	증17.8

(주) 협회조사자료 : 전국 대규모 20개 농장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음.

○요점

1. 전월대비 총 사육두수 2%증가
2. 자돈및 후보 종빈돈이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내었으며 육성돈이 가장적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3. 동향분석및 대책

대규모 20개 양돈장의 조사자료와 50두이상 회원 농가의 사육두수 조사 자료에서 모두 최근

에 자돈 사육두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최근 입식이 증가한 자돈은 12월에 출하될 물량으로 이때에는 돈육소비량이 증가하는 시기이기는 하나 공급물량의 과잉현상으로 가격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으며 또한 이는 8월중 자돈사료의 15.8%증가 로 자돈의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번식돈의 보유두수도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양돈 농가에서 돼지사육 의욕이 증가할 경우 자돈생산이 급속히 증가할 우려가 있어 양돈농가에서는 항시 보유모돈수를 84년6월 수준인 적정수준에서 유지되도록 자율적인 생산조절이 요구되고 있다.

II. 배합사료 생산동향

1. 축종별 배합사료 생산동향

(단위 : 천M/T)

축종별	월별	'84년			증감율(%)	
	'83년	8월 (A)	6월 (B)	7월 (C)	C/B	C/A
총 생산량	470	491	474	474	증 1.1	증 0.9
양돈용	166	160	152	159	증 4.6	감 4.2
양계용	186	189	177	160	감 9.6	감14.0
낙농용	55	63	64	69	증 7.8	증25.5
비육용	62	79	76	85	증11.8	증37.1

(주) 총생산량중 기타사료 생산량포함.



○요점

1. 전반기중 육계가격의 불안정세로 육계의 사육두수가 크게 감소함에따라 양계용 배합사료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음.
2. 양돈농가의 자돈입식의욕이 증가함에 따라 자돈사료의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육성비육용 사료와 모돈사료도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여 양돈사료의 생산량이 7월에 비하여 4.6%가 증가하였음.

2. 품목별 양돈사료 생산동향

(단위: M/T)

구분 \ 월별	83.8 (A)	'84			증감율(%)	
		6월	7월 (B)	8월 (C)	C/B	C/A
총 생산량	166,210	160,099	151,880	159,064	증 4.7	감 1.3
갓 난 돼지	1,785	1,155	1,117	1,528	증 36.8	감 14.4
젓 먹이 돼지	23,651	18,261	17,436	20,539	증 17.8	감 13.2
육성돈	59,885	70,649	67,931	70,408	증 3.6	증 17.6
비육돈 전기	6,492	7,075	7,545	7,925	증 5.0	증 22.1
비육돈 후기	11,922	12,412	12,640	12,954	증 2.5	증 8.7
임신돈	8,907	6,316	5,907	5,677	감 3.9	감 36.3
포유돈	9,037	8,674	8,223	8,989	증 9.3	감 0.5
종돈	44,531	35,557	31,081	31,044	감 0.1	감 30.3

○요점

- 8월중 양돈사료 7월대비 4.7% 증가(갓난 돼지 36.8% 젓먹이 돼지 3.9%, 종돈 0.1% 감소)
- 자돈사료가 무려 18.9%가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으며 포유돈 사료도 9.3%가 증가하였음.
- 임신돈 및 모돈사료가 미세하게나마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85년 5~6월 이후의 여름철 비수요기에 출하될 돼지는 이미 수태 완료된 상태로 당분간 자돈의 생산두수는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Ⅲ. 돼지 출하 및 가격동향

- 가. 추석이 임박한 9월 1주에는 출하 물량의 급격한 증가로 차상계류 사태가 발생하여 도축물량도 크게 증가하였으나 돈육 소비량의 급격한 증가로 돈육가격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었음.
- 나. 추석 이후 돈육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따라서 도매시장의 도축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돈육 가격은 계속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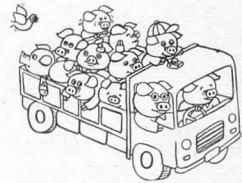
○돈육가격 약보합세의 원인

- 추석 이후 소비량의 급격한 감소
- 9월초의 극심한 수해로 인하여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당국에서는 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수입 쇠고기의 방출량을 추

석이 지난 후에도 계속 1일 1,000여두씩 방출하고 있고 또한 수매 비축한 돈육의 방출 조절에 의하여 돈육가격은 계속 약보합세 유지.

다. 10월부터 돈육가격 회복세 예상

- 9월 25일부터 500g당 소비자가격이 1,550원에서 150원이 하락한 1,400원에 거래되며 또한 쇠고기 방출물량을 1일 1,000여두에서 700두로 감소시킴에 따라 돈육 가격은 점차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돈육 소비량도 채소류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서울도매시장 출하 및 가격동향

(단위: 두, 원/세육kg)

구분 \ 주별	7월		8월					9월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5주	1주	2주	3주
합계	5,534	5,377	5,713	4,870	5,576	4,770	6,138	5,381	5,337	5,298
도매시장경락두수	4,780	4,291	4,010	4,272	5,038	4,236	4,321	4,900	3,721	3,764
지방육반입량	754	1,086	1,703	598	538	534	1,817	481	1,616	1,534
평균가격 원/지육	1,891	1,769	1,777	1,923	2,171	2,015	1,979	1,981	1,930	1,866

(주) 서울 3개 도매시장 경락두수 및 평균경락가격

2. 지역별 출하 및 가격 동향

구분	주별	7월		8월			9월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5주	1주	2주	3주
인천	도축두수	862	835	616	785	892	694	705	1,061	710	538
	경락가격	1,783	1,750	1,705	1,874	2,015	2,005	1,900	2,014	1,921	1,926
대구	도축두수	666	6,631	607	544	705	626	592	770	721	511
	경락가격	1,751	1,704	1,731	1,752	1,943	2,045	1,944	2,010	2,011	1,858
부산	도축두수	1,559	1,295	1,146	1,156	1,363	1,271	1,335	1,498	1,194	1,096
	경락가격	1,774	1,705	1,785	1,838	2,152	2,058	1,980	2,071	2,033	1,960
광주	도축두수	202	218	205	167	207	191	159	222	163	182
	경락가격	1,613	1,619	1,639	1,740	2,033	2,009	1,935	1,984	2,057	1,8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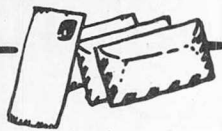
(주) 9월 3주는 20일까지의 평균치임.

가. 추석이 임박한 9월 1주부터 지방의 돼지 경락가격이 서울의 경락가격에 비하여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추석 직후에도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9월 3주부터 부산을 제외한 인천, 대구, 광주지방이 서울

가격에 비하여 약세로 전환되었음.

나. 광주지방의 지육경락가격은 타지방에 비하여 아직도 등락율이 심한 현상을 보이고 있음.

모니터 통신



전북지역 강은선 모니터

돼지고기 연동가격 인상조정

전북도내 정육점에서는 9월 7일부터 박피육(500g)을 1,350원에서 1,500원으로 150원 인상 조정 하였는데도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며 생체는 kg당 1,200원에서 1,25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자돈시세는 최고 45,000원 최저 30,000원으로 평균 37,5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물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멧돼지에 농사피해

전북일보 8월 29일자에 따르면 남원군 아영면 구상리에 일주일 전부터 5~6마리의 멧돼지가 밤에 떼지어 다니면서 벼를 마구 헤집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요망된다.

27일 이 마을에 사는 이모 씨는(54) 멧돼지가 밤중에 떼지어 눈에 나타나 1천 6백 50㎡의 눈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가족이 교대로 밤잠을 설쳐가며 눈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구마밭에도 멧돼지가 무리를 이루고 다니면서 마구 헤집고 다니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는 추수가 끝날 무렵에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

대구 지역 김노식 모니터

수요 늘어난 돼지고기 값 멋대로 올려받아

대구시내 정육점은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돼지고기 소비 증대로 인해 경락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자 시중 정육점들은 고시가격을 무시, 값을 올려 받거나 질 낮은 고기를 섞어 팔아 소비자와 마찰까지 빚고 있다.

또한 지난 80년 3월 이후 시행되고 있는 돼지고기값 연동제도 시세에 민감하게 반영이 안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